

[성탄축하말씀집회]

둘째 날 :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하용조 목사 / 요 13:1~11 / 페이지 수: 5

기적보다 더 큰 사랑의 힘

예수님께서서는 생전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앓은뱅이를 일으키시고, 봉사를 눈뜨게 하시고, 손 마른자를 고쳐주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런 일들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 33년을 사시면서, 특별히 3년 동안 하신 여러 공적인 일들 가운데 제게 오랫동안 감동으로 남는 것은 그렇게 초자연적이거나 기적적인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서 하신 일들 중에 제 마음에 오랫동안 감동을 주는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일은 그렇게 웅변적이거나 위대하거나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나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도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던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이 위로 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덮어주시고, 희망을 주셨던 사건입니다. 내 마음 속에는 늘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던 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그 일은 나도 할 수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기에 기적의 사건보다 더 오랫동안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도 처음에는 십자가를 피하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고, 질 수 있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도 있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 하자, 베드로는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로 선택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론을 얻으신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에 살아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현장에서 잡았다’라는 말이 강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연히 현장에서 발견되었을 수도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을 보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여자는 억울하다고 변명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미 빠진 것입니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렵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을 겪을 수 있고, 수치스러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자는 귀신들린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상황에 있었고, 윤리적으로 정죄 받아 마땅한 상황에 있었기에 더 괴로운 겁니다.

세상에는 간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들켰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들킨 죄와 안 들킨 죄가 있습니다. 들킨 사람들은 다 교도소에 가고, 안 들킨 사람들은 다 여기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들킨 것뿐입니다. 우리는 들키면 죄가 되고, 증거가 없으면 떳떳하게 큰소리 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들킨 사람이 항변을 합니다. 왜 자신만 들켰냐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않냐고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듣고 아무말 없이 허리를 굽혀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사람들이 또다시 다그쳐 재촉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칠까요?” 이것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이미 돌로 치고도 남았을 텐데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참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그치니까 글을 쓰시다가 가만히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고발이 잘못되었다거나 모세의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잘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마디뿐입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라고 하신 이 말은 여인을 비난하던 사람들뿐 아니라 여인에게도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충격을 줍니다.

왜 이런 충격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 있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간음죄에 빠지기도 하는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간음한 여자의 사건 현장에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모두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던 이들이 어디에 갔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없어요. 다 갔어요.” 그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여자는 자신이 무슨 죄로 곤혹을 치르고 있었는지조차 다 잊었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자의 수치를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여자에게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여자여 당신은 자유이니 가시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나쳐주십니다. 보고도 못 본 척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꼭 꼬집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수치를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겁니다. 흠탕물은 그냥 두면 10m를 못 가서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것을 따지면, 더 흠탕물이 됩니다. 때로는 그냥 지나쳐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거나 하나님이 되면 시끄러워집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눈감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쳐주는 것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건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건을 만날 때 화를 내게 되고, 그 화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10년도 가고 20년도 갑니다. 결국 그 상처는 복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속아 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해 감동을 주는 또 다른 메시지는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최후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직감으로 자신의 죽음을 이미 아시는 탁월함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죽게 될 때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평소와 다릅니다.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성숙해집니다. 죽음을 앞둔 고백은 진실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보는 세상은 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한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실수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지라도 그것을 지적하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병든 사람들에게 건강해지거든 오라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채 오라고 합니다. 회사가 부도난 사람에게 다 정리하거든 찾아오라면 누가 오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수치스러우면 수치스러운 대로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받아주십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연약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실수투성이에다가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화도 잘 내며, 서로 싸우기도 잘 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제자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믿어주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격려했습니다. 사람은 야단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변합니다. 받아주면 변합니

다.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내가 대신 지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도중에 사랑하다 포기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진정한 사랑은 발을 씻어주는 것

사랑은 언어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신 겁니다. 걸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고 밖에 나가 대야에 물을 담아가다가 밥 먹고 있는 제자들 앞에 앉으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밥을 먹고 있었지만, 밥을 먹은 게 아닙니다. 그 식사가 최후의 만찬인 것을 이미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는 감정이 북받친 겁니다. 밥을 먹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슴은 사랑으로 뜨거워진 겁니다. 그 비등점이 오니까 어쩔 줄 몰라서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이런 게 사랑입니다. 이 장면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에 감동이 없습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의 문으로 통과시켜주시고, 내 허물을 못 보게 덮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까?”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격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하는 법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람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넘어가 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나보다 못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위로와 격려의 말을 그리워하는지 모릅니다. 누구든 빈말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위로 받고 싶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격려를 받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어주겠노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면서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어주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없다”고 하니 베드로가 답합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몸도 씻어주시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줄 모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누군가 잘 해주면 또 내게 무슨 수를 쓰려고 하는 거야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경계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덮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 축하잔치를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상처를 주지 않았던 예수님께서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상처도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지성을 동원해 상대방의 약점을 꼬집어내는 족집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다 쓸데없는 겁니다. 덮어주고, 받아주고, 속아주고, 용서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나를 보신다면, 내가 어디로 숨겠습니까? 시편 32편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감싸주고, 지나쳐주셨기에 내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도 밤 먹다가 말고, 그 끓어오르는 사랑을 견딜 수 없어 상황도, 시간도 상관없이 사랑을 표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 너무 인색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랑을 표현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해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해보십시오. 혹 베드로와 같은 아내나 남편, 자녀가 있을지라도 화를 내지 마시고, 참고 오늘 밤을 지내보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성탄, 사랑의 성탄, 용서의 성탄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예수님,
한 여인의 처절한 수치와 좌절감을
상처 주지 않고 덮어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어루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만들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 은누리신문